

주요개념 :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문제학생가족과 정상학생가족의 가족역동 비교연구\*

김 윤 희\*\* · 문 희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에서는 가족을 구조를 지닌 일종의 체계로 보고 개인은 그 가족의 하위체계로 보고 있다 (Minuchin, 1967). 이러한 가족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상호작용패턴들이 모여 비합계성의 특징을 지닌 상호체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족원들의 행위는 상호영향을 주며 이들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Jackson, 1967 : Haley, 1974).

그러므로 개인의 병리나 증상은 가족체계내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가족체계의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Gurman & Kniskern 1981, Hansen 과 L'abate 1982).

서구에서는 이미 비행 및 정서장애의 발생과 문제해결에 가족의 변인들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가고 있고 (Minuchin, 1967. Hetherington 등 1971, Jacob 1975, Alexander 등 1973, 1976, 1977) 그 결과 청소년 비행과 정신치료를 위한 가족 중심의 중재행위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상적, 실험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어 (Gurman, 1981 :

Patrick, 1986), 비행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개인 치료와 가족치료의 비교에서도 가족치료가 보다 효율적이고 우월하다는 것이 규명되었고 심지어는 청소년 법정에서까지 부모 교육과 기타 가족위주의 중재행위를 보충하도록 하는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Windell 과 Windell 1977). 그리하여 이제는 청소년 비행에서 알콜중독, 아동학대, 성기능장애 및 모든 정신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치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라는 의미조차 성립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Foley, 1974. Gurman, 1981).

이러한 추세로 비추어 국내의 경우 날로 중독화, 조직화, 집단화, 흉악화, 연소화, 누범화 (정우식, 1986. 온중대, 1988)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는 예방 및 치료적 측면에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론적 관점에서 자녀의 문제행위를 가족체계적 맥락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1970년대에 가족이론 및 가족치료에 대한 소개와 일부 사례연구 (안향립, 1975 : 김선심, 1975 : 박춘우, 1978 : 한은영, 1979 : 이명홍, 1986) 가 보고 되었고 정상청소년 가족3인을 중심으로 가족의 유형과 성격,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부분적으로 이들간에 상호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안향립, 1988).

\* 본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 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그리고 본 연구자가 모범 청소년과 소년원에 있는 범죄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을 비교분석하였고(김윤희, 1989), 또한 입원정신질환청소년과 정상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유사연구를(김윤희, 1992) 시도한 바 범죄청소년 가족과 정신질환 청소년 가족의 가족관계는 정상가족에 비해 비교적 역기능적이며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저하되어 있음과 가족하위체계(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가족기능(결속력, 적응력)들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가족체계의 진단과 도구적용의 유효성을 재확인 하고,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위 예방과 선도 그리고 중재를 위한 가족체계적 접근이론활용의 필요성을 확고히 하고자 일반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과제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에 근거해서 문제성있는 자녀의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하위체계들간의 역기능적인 상호관계 및 가족기능에 의해 초래된 가족관계의 부산물이라고 할수있는지를 확인해보고져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제학생 부모와 정상학생 부모의 부부관계를 비교분석한다.
- 둘째, 문제학생 가족과 정상학생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를 비교분석한다.
- 셋째, 문제학생 가족과 정상학생 가족의 가족기능(결속력, 적응력)을 비교분석한다.

## 3. 연구의 가설

- 제1가설 : 문제학생 부모의 부부관계는 정상학생 부모의 부부관계 보다 상호 만족정도가 낮을 것이다.
- 제2가설 : 문제학생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는 정상학생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보다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을 것이다.
- 제3가설 : 문제학생 가족의 가족기능(결속력, 적응력)은 정상학생 가족의 가족기능 보다 낮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

정신분열증 가족은 가족원간에 이중구속의 모순된 의사소통(Beteson 등, 1956)과 결혼의 편중 및 왜곡(Lidz 등, 1958), 또는 외관상으로는 가족원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개방적인듯 하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가상 상호성(Wynne 등, 1958) 및 고도의 속임수(Laing, 1965)를 빈번히 나타내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개인의 문제를 가족원간의 연쇄반응적인 병리현상의 반영으로 보고 개인정신치료를 가족관계의 영향을 고려(Ackerman, 1970)하게 되면서 가족이론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고 가족치료의 붐도 일기시작하였다(Gurman과 Kniskern, 1981, Hansen과 L'Abate, 1982).

이와 같은 가족이론 연구는 1960년대 Ludwig Von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 이론과 James G. Miller(1980)의 생물체계이론의 도입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직선적인 정신분석학적 가족이론에서 체계적 접근의 순환적 가족이론으로 그 연구의 관점이 변화되었고, 가족이론가들도 체계론적 관점에서 각자의 위치를 분명히 굳혀 나갔다(Bertalanffy, 1968 : Apt와 Stuart, 1982).

그리하여 체계적 이론들은 정신 건강 문제 상담 및 치료에 매우 가치있는 이론임이 판명되었고 오늘날 가족치료 운동을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게되었다(Foley, 1974 : Guerin, 1976 : Gurman, 1981 : Hoffman, 1981).

현재 가족치료에 적용되고 있는 가족이론은 정신분석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체계적접근이론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체계적 접근 이론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Gurman과 Kniskern, 1981 : Abt와 Stuart, 1982). 정신분석적 가족이론은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가족이라는 공동체적 구조와 체계에 응용한 것으로 개인의 성격 형성 초기 발달단계의 치료에 있어서도 개인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고있다. 또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나 가족을 직접 참여시키지는 않는다(Gurman과 Kniskern, 1981).

그리고 행동주의적 가족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간주하고 학습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인간의 내적 반응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므로, 가족이란 개인에게 외적자극을 제공하고 또한 자극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주는 중요한 의

계로 보고 가족을 중요시하고 있다(Gurman등, 1981 : Hansen 과 L'Abate, 1982).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은 가족을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상호의존적 체계로 본다. 그러므로 개인의 정신병리나 행동장애는 가족이라는 체계가 가지는 문제의 반영으로 생각하고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개인의 문제를 해소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Gurman 과 Kniskern, 1981 : Apt 와 Stuart, 1982 : Hansen 과 L'Abate, 1982).

또한 개인의 증상은 가족체계의 영향을 받아 개선 및 변화될 수 있고 가족환경도 개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될 수 있다는 순환적사고가 정신분석이나 행동주의의 직선적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구별이 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정신분석이론은 인간의 정신내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변화된 행동을 중요시하나 체계적 접근이론에서는 개인의 정신내적과정, 변화된행동, 그리고 가족환경등의 차원을 모두 중요시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중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고 영향력이 많은 대표적 이론은 Murray Bowen 의 가족체계이론, Salvador Minuchin 의 구조적이론, Don Jackson, Virginia Satir 의 의사소통이론, Jay Haley 의 전략적 접근이론을 들수있다. 이와같은 체계적 접근이론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개인의 특별한 행동양상을 분석하고 전체 가족체계내에서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이론은 대인이론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가족이론 및 가족치료연구는 1970년대초 Satir 의 「Conjoint Family Therapy」(1967)라는 저서가 소개되면서 이를 기초로 체계이론접근의 가족치료이론과 치료에 대한 소개 및 일부사례연구가 보고(김선심, 1975 : 안향림, 1975 : 이명홍, 1986) 되었으나 아직도 매우 생소하며 가족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도 많지 않으므로(이명홍, 1986),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이 간호대상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이고 간호의 목적이 대상자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의 회복 및 재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체계적 접근의 가족이론과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2. 가족하위체계 및 기능

### 1) 부부하위체계

부부하위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적으로 독특한 과업 및 기능을 갖는데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기술은 상호보완성과 상호적응성이다. 즉 부부는 관계를 통해 배우자에게 잠재되어있는 창조성을 활성화시켜 지지해주거나 보완해주고 상호간의 차이점에 대하여서는 상호적응을 해야 한다(Minuchin, 1974).

부부는 가족의 설계자임과 동시에 타하위체계의 통솔자로서 가족내에서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므로 가족 문제의 모체가 된다. 그러므로 이 체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Minuchin, 1974 : Satir, 1967).

더욱이 부부하위체계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기능은 가족체계의 안녕을 좌우하므로 이 체계는 어떠한 하위체계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족이론가들은 가족의 기능수행에 부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족스럽고 질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부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Olson등, 1983 : Burr, 1973 : Nye 1976) 그 관계를 결정지어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애정과 동반자의식(Compbell, 1976), 의사소통양상(Satir, 1967 : Nye, 1979), 배우자의 성격특성, 가치관의 일치, 역할갈등, 재정문제, 자녀양육문제, 여가, 인척관계, 성관계, 생활태도, 가사처리 등을 들고 있다(Olson등 1983 : Spanies 와 Lewis, 1979).

체계의 성공이나 실패 또는 기능적, 역기능적 평가의 기준을 부부관계에 두고 치료시에도 부부 2인군간의 관계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것(Foley, 1979, 1987 : Satir, 1967)을 볼때 어느 하위체계보다도 중요하므로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부모-자녀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는 첫아이의 출생으로 새로이 생성되는 체계로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될때 분리된다. 부부는 상호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모로서의 가족체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한 양

육과 적절한 지도 및 사회화를 위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이 체계는 서로다른 세대로 구성되었으므로 부모는 자녀를 부부체계로부터는 제외시키되 양쪽 부모에게 접근이 허용되도록 적절한 경계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자녀간의 불분명한 경계는 부모-자녀간에 만성적 역기능적 3인군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Minuchin, 1974 : Foley, 1974 : 김윤희, 1989).

특히 청소년기에 처해있는 가족체계의 경우 부모쪽의 요구와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의 생활주기중 상호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은 때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아의식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는 독립심의 발로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유리되고져하는 강한 욕구와 동료집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Olson 등, 1983. Collan & Noller, 1986).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부부 및 가족들의 만족, 가족결속력, 적응력이 떨어지고 가족원간(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결여가 심하므로 부모는 자신들의 권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통제와 지지를 통해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반항하고 위협하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개별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inuchin (1967)은 빈민가의 비행청소년과 정상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비생산적, 비협조적으로 기능하였고 아버지는 주변적 위치에 그리고 어머니-자녀의 연합을 통해 어머니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가족원들이 극단적으로 융합 또는 유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Duncan (1971), Jensen (1972)등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비행 횟수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효율적인 역할수행 기술의 부족이나 또는 보유한 기술의 비능률적인 사용으로 가족원들의 행동관리와 체계구조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며 이러한 가족 구조의 부실함과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축적될 경우 가족원중의 누군가가 비행자로 행동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Hetherington 과 Martin (1979)은 신경증적 비행청소년 가족은 어머니에 의해 주도되고 부부사이에 갈등이 많으며 자녀들은 소극적이고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었고, 공격적이고 사회 병질적인 비행청소년 가족은 아버지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있음을 보고하였다.

Jacob(1975)은 비행청소년 가족과 정상청소년 가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정상청소년가족에 비해 부모의 의견 불일치가 잦고 자녀들에게 모순된 지시를 내리고 있었으며 가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모-자녀간의 경계가 없고 자녀위주의 위계질서를 지녔으며 긍정적 정서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내었고 의사소통에서 혼돈이 많고 타협을 싫어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Olson (1983, 1985) 또한 일반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청소년사이에 지각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세대간의 차이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견해차이를 세대간의 간격이라기 보다 의존과 독립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외에도 가출청소년(Stein boch, 1977), 비행청소년 (Alexander 1973, 1977 : 김윤희, 1989 : Masselam, 1989 : 김윤희, 1992) 의 가족에 대한 연구결과 부모와의 갈등이 많고 가족원간에 지각 불일치가 심함을 보고하였다.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으며 (김소야자, 1982), 문제청소년부모에게서 부부간의 상호지각 불일치(석말숙, 1988 : 김윤희, 1989)가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연계성을 밝혀주고 있다. 즉 비효율적이고 모순적인 부모의 훈육, 역할수행, 권위, 부부간의 의견불일치는 자녀의 문제행위(비행, 정신질환 등)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모와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가족치료가 고려되어야 함을 실증해 주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가족 3인군(본인, 아버지, 어머니)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행위 정도에 따라 정상군과 문제군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을 비교 분석하고자 구조화된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이용한 사후조사 연구(expost facto design)이다.

####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자료는 1992, 6~1992, 10에 수집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자녀 (15세-18세)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시내 거

주 가족으로서 먼저 청소년을 선정된 후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현재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고, 연구에의 참여를 허락한 자료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는 사회, 경제 및 지리적조건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로 인문계 주간 2개교(남, 녀), 야간 2개교(남, 녀), 실업계 주간 2개교(남, 녀), 야간 2개교(남, 녀) 등 모두 8개교 1학년씩 16개 학급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자가 선정된 학교의 학년주임교사 및 담임교사를 찾아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 및 의견교환을 하고 학생용, 아버지용, 어머니용의 3종류 질문지 봉투를 주고 학생용은 즉석에서, 부모님용은 집에서 해오되 응답내용을 볼 수 없게 밀봉해 오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600 가족이었으나 응답을 보내준 가족은 450가족(75%)이었고, 이 중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309 가족(51.1%)의 자료였다. 또한 이들 309 가족의 자료에서 다시 정상군의 학생가족과 문제군의 학생가족을 선별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문제행위 목록(43가지)에 표시한 자료를 근거로 이들 두 집단을 분류한바 정상군 67 가족, 문제군 109 가족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자료는 총 176 가족(528명)의 응답반응이었다.

### 3. 연구도구

#### 1) 부부관계 측정도구

1982년 미국의 정신사회학자인 David H. Olson, David G. Fourniers, Joahn M. Druckman 등이 개발한 부부관계측정도구(ENRICH)를 저자의 동의를 얻어 1989년 한국에서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했던 것을 재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래는 12개 하위요인 총 115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을 문항분석,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하위요인 총 95 문항을 이용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부각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분포는 Chronbach's  $\alpha$  값 .66 - .83 이었고 총신뢰도는 .95이었다.

도구의 내용 및 평가 신뢰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 도구 내용구성 및 신뢰도 분포

| 하위요인          | 내용 및 평가  | 항목수 | Chronbach' $\alpha$ 값 |
|---------------|--|-----|-----------------------|
| 1. 배우자의 성격    |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성격(기질, 신뢰성, 성실성, 고집, 기분, 독재성)습관(음주, 흡연, 귀가), 행동등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만족함을 의미 | 10  | .83                   |
| 2.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감이 높고 만족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잘됨을 의미                         | 10  | .81                   |
| 3. 갈등 해결      | 점수가 높을수록 의견이 대립될 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로 다툼과 상호갈등이 적음을 의미                            | 10  | .75                   |
| 4. 재정 관리      | 점수가 높을수록 금전관리(저축, 예산, 집행등)및 금전사용에 관해 상호의견이 일치하고 만족함을 의미                            | 10  | .74                   |
| 5. 여가 활동      | 점수가 높을수록 취미, 오락, 자유시간 활용에 대해 상호만족하고 의견이 일치함을 의미                                    | 10  | .66                   |
| 6. 성 관계       |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애정표시 및 성관계에 대해 만족함을 의미   | 10  | .80                   |
| 7. 자녀 문제      |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책임분담, 양육태도,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상호의견이 일치하고 만족함을 의미                         | 10  | .73                   |

| 하위요인        | 내용 및 평가   | 문항수 | Chronbach's $\alpha$ 값 |
|-------------|---|-----|------------------------|
| 8. 친지와 의 관계 | 점수가 높을수록 시가, 처가, 친척 기타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   | 10  | .77                    |
| 9. 역할분담     | 부부간의 역할, 결정권, 가사책임분담에 관한 태도 및 신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수행에 만족함을 의미함 | 10  | .70                    |
| 10. 종 교     |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종교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5   | .72                    |

### 2) 부모-자녀관계 측정도구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전달매개체이며 상호작용이나 교류의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족내의 의사소통 및 세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1982년 David H. Olson 과 Howard L. Barnes 가 개발한 PAC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도구를 본 연구자가 1989 저자의 동의를 얻어 번안하여 사용했던 것을 검토한 후 재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 총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하고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관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하기 위해 부모용, 청소년용 두 종류가 있다.

본 도구의 총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값 .93 이었으며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모-자녀관계 측정도구 내용구성 및 신뢰도 분포

| 하위요인          | 내용 및 평가   | 문항수 | Chronbach's $\alpha$ 값 |
|---------------|---|-----|------------------------|
| 개 방 형 의 사 소 통 |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간의 감정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스러우며 이중구속을 받지않고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 10  | .91                    |
| 문 제 형 의 사 소 통 | 점수가 낮을수록 서로의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상대방에 대해 불신하며 선택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등 문제가 많음을 의미 | 10  | .85                    |

### 3) 가족기능 측정도구

1985년 David H. Olson, Joyce Portner, Yoav Lavee 등이 개발해놓은 가족적응력·결속력평가도구 (FACES-III)를 저자의 동의를 얻은 후 1989년 본 연구자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 했던것을 재검토한 후 수정

·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2개의 하위요인 총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자녀용, 부모용 두 종류가 있다.

도구의 총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값 .88 이었으며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기능 측정도구 내용구성 및 신뢰도 분포

| 하위요인 | 내용 및 평가   | 문항수 | Chronbach's $\alpha$ 값 |
|------|---|-----|------------------------|
| 결속력  |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정서적 유대 및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공동시간, 친구관계, 취미, 오락등이 잘 유지됨을 의미 | 10  | . 88                   |
| 적응력  |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도력, 통제, 권력구조, 훈계, 각자의 역할 및 관계상의 규칙이 잘 지켜짐을 의미       | 10  | . 65                   |

4) 문제행위 측정도구

1983년 민병근 등(1983)이 청소년의 문제행위 평가를 위해 개발해 놓은 도구를 본 연구자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3가지의 행위중 최근 8개월 이내에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용에 O 또는 X로 표시하도록 한 후 43가지의 행위 중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정상군'으로 그리고 43가지의 행위중 비행에 해당되는 15가지 행위중에서 1개이상 표시가 되어있는 학생은 '문제군'으로 처리하였으며 15가지 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면관계상 28가지의 행위 내용은 생략하기로 함)

1. 흡연을 자주한다. (주2회이상)
2. 술을 간혹 마신다. (주1회이상)
3. 간혹 주위의 기물을 파손한다.
4. 타인을 심하게 폭행한 적이 있다.
5. 부모에게 심한 반항을 자주한다.
6. 간혹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7. 성관계나 동거 경험이 있다.
8. 상점에서 물건을 잘 훔친다.
9. 무기 또는 유기정학을 당한 적이 있다.
10. 3일 이상 무단 결석한 경험이 있다.
11. 무단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
12. 집의 물건을 훔쳐 내다가 판 경험이 있다.
13.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14. 환각제(마리화나, 본드 등)나 각성제(히로뽕, 코카인 등)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15. 여자의 물건(속옷, 스타킹, 향수 등)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Program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정상군과 문제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두 군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백분율과  $\chi^2$ -text 를, 두 군간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를 하였고, 이들 가족관계와 자녀의 행위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two-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를, 그리고 도구의 판별분석을 위해 discriminant analysis 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연구대상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종교, 출생순위, 친부모 유·무에 관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및 정상학생군(이하 정상군)과 문제학생군(이하 문제군)간의 유관성 검증 결과는 <표1>과 같다.

정상군의 경우 여자(65.7%) 가 남자(34.3%)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16.9세, 종교는 없는군(52.3%)이 출생순위는 맏이(39.5%)와 막내(37.6%)가 많았으며 부모의 경우 대부분(95.5%)이 친부·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군간의 유관성 검증에서 성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바 문제군(44%)의 경우 정상군(34.3%)에 비해 남자가 그리고 정상군(65.7%)의 경우 문제군

<표 1>

| 특성      | 구분           | 계(N=176) |        | 문제군(N=109) |        | 정상군(N=67) |        | x <sup>2</sup> -test | P     |
|---------|--------------|----------|--------|------------|--------|-----------|--------|----------------------|-------|
|         |              | N        | %      | N          | %      | N         | %      |                      |       |
| 성       | 남자           | 71       | (40.3) | 48         | (44.0) | 23        | (34.3) | 17.68                | .0005 |
|         | 여자           | 105      | (59.7) | 61         | (56.0) | 44        | (65.7) |                      |       |
| 연령(5세): | 16           | 34       | (19.3) | 15         | (13.8) | 19        | (28.4) | 22.94                | .0063 |
|         | 17           | 115      | (65.4) | 77         | (70.6) | 38        | (56.7) |                      |       |
|         | 18           | 27       | (15.3) | 17         | (15.6) | 10        | (14.9) |                      |       |
|         | 평균           |          |        | 17.1세      |        | 16.9세     |        |                      |       |
| 종교      | 유            | 80       | (45.5) | 52         | (47.7) | 28        | (41.8) | 5.51                 | .1675 |
|         | 무            | 96       | (54.5) | 57         | (52.3) | 39        | (58.2) |                      |       |
| 출생순위 :  | 만이           | 70       | (39.8) | 43         | (39.4) | 27        | (40.3) | 11.43                | .4927 |
|         | 중간           | 35       | (19.9) | 20         | (18.3) | 15        | (22.4) |                      |       |
|         | 막내           | 64       | (36.4) | 41         | (37.6) | 23        | (34.3) |                      |       |
|         | 독자(독녀)       | 2        | (1.1)  | 1          | (.9)   | 1         | (1.5)  |                      |       |
|         | 딸3이상의<br>외아들 | 5        | (2.8)  | 4          | (3.7)  | 1         | (1.5)  |                      |       |
| 친부모 :   | 친부, 모        | 169      | (96.0) | 104        | (95.4) | 65        | (97.0) | 18.54                | .1002 |
|         | 여부 친부, 계모    | 2        | (1.1)  | 2          | (1.8)  | -         |        |                      |       |
|         | 친모, 계부       | 1        | (0.6)  | -          |        | 1         | (1.5)  |                      |       |
|         | 계부, 계모       | 2        | (1.1)  | 1          | (.9)   | 1         | (1.5)  |                      |       |
|         | 양부모          | 2        | (1.1)  | 2          | (1.8)  | -         |        |                      |       |

(56.0%)에 비해 여자가 많았다. ( $x^2=17.68, P=.0005$ )

또한 연령에서 정산군에 비해 문제군의 경우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 ( $x^2=22.94, P=.0063$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일반학생 집단에서 문제행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그리고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더욱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종교, 직업, 이혼유무, 경제상태, 동거가족수를 조사한 결과 및 두 군간의 유관성 검증결과는 <표 2-1>과 같다.

정상군 아버지의 연령은 50-59세군(80.0%)이 가장 많고 평균 52세이었으며 종교는 있는군(65.7%) 이, 학력은 고등학교 (40.0%) 와 전문대 및 그 이상 (40.0%) 이, 직업의 경우 판매직(32.8%) 이 가장 많았고, 이혼 경험은 3.0%가 있었으며 경제상태는 중위(51.4%)가

많았고 동거가족은 평균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간의 유관성 검증에서 차이가 전혀 없었다.

②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두 군간의 유관성 검증결과는 <표 2-2>와 같다.

정상군 어머니의 경우 40-49세군 (64.2%)이 많았고 71.6%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40.3%)이, 직업은 가정주부(67.9%)가 많았고 이혼경험이 있는 경우는 3.0%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85.1%)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군 어머니의 경우 역시 40-49 세가 (78.9%)가 가장 많았고 75.2%가 종교를 어머니 나이는 역시 40-49 세가 (78.9%) 가장 많았고 75.2%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학력은 또한 고졸 (45.0%)이 직업은 가정주부 (64.1%)가 많았고,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였으며 핵가족 (73.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간의 유관성 검증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다.



<표2-1>

| 특성  | 구분    | 계          |   | 문제군        |   | 정상군       |   | $\chi^2$ -test | P     |
|---|-------|------------|---|------------|---|-----------|---|----------------|-------|
|   |       | N          | % | N          | % | N         | % |                |       |
| 연령(세) : 평균 = 40미만                                 |       | 54세        |   | 56세        |   | 52세       |   |                |       |
|   |       | -          |   | -          |   | -         |   |                |       |
|   | 40-49 | 23 (13.0)  |   | 13 (11.9)  |   | 10 (14.9) |   | 3.95           | .6839 |
|   | 50-59 | 139 (79.0) |   | 85 (78.9)  |   | 54 (80.0) |   |                |       |
|   | 60-69 | 14 (8.0)   |   | 11 (10.2)  |   | 3 (4.5)   |   |                |       |
|   |       |            |   |            |   |           |   |                |       |
| 종교 : 유무   | 유     | 100 (56.8) |   | 56 (51.4)  |   | 44 (65.7) |   | 4.57           | .2063 |
|   | 무     | 76 (43.2)  |   | 53 (48.6)  |   | 23 (34.3) |   |                |       |
| 학력 : 전문대이상<br>고등학교졸업<br>중학교졸업<br>국민학교졸업<br>및 국문해독 |       | 65 (36.9)  |   | 38 (34.9)  |   | 27 (40.3) |   | 13.02          | .1617 |
|   |       | 74 (42.0)  |   | 47 (43.1)  |   | 27 (40.3) |   |                |       |
|   |       | 23 (13.1)  |   | 17 (15.6)  |   | 6 (9.0)   |   |                |       |
|   |       | 14 (8.0)   |   | 7 (5.5)    |   | 7 (10.4)  |   |                |       |
|   |       |            |   |            |   |           |   |                |       |
| 직업 : 근로자<br>숙련공<br>판매직<br>사무직<br>관리직<br>전문직<br>실직 |       | 37 (21.0)  |   | 24 (22.0)  |   | 13 (19.4) |   | 17.56          | .4852 |
|   |       | 21 (11.9)  |   | 14 (12.8)  |   | 7 (10.4)  |   |                |       |
|   |       | 44 (25.0)  |   | 22 (20.2)  |   | 22 (32.8) |   |                |       |
|   |       | 26 (14.8)  |   | 17 (15.6)  |   | 9 (13.4)  |   |                |       |
|   |       | 31 (17.6)  |   | 20 (18.3)  |   | 11 (16.4) |   |                |       |
|   |       | 14 (8.0)   |   | 9 (8.3)    |   | 5 (7.6)   |   |                |       |
|   |       | 3 (1.7)    |   | 3 (2.8)    |   | -         |   |                |       |
|   |       |            |   |            |   |           |   |                |       |
| 이혼 : 유무   | 유     | 7 (4.0)    |   | 5 (4.6)    |   | 2 (3.0)   |   | .90            | .8256 |
|   | 무     | 169 (96.0) |   | 104 (95.4) |   | 65 (97.0) |   |                |       |
| 경제상태 : 상<br>중<br>하                                | 상     | 17 (9.7)   |   | 11 (10.1)  |   | 6 (9.0)   |   | 3.98           | .6790 |
|   | 중     | 140 (79.5) |   | 84 (77.1)  |   | 56 (83.6) |   |                |       |
|   | 하     | 19 (10.8)  |   | 14 (12.8)  |   | 5 (7.4)   |   |                |       |
| 동거가족수 : 1<br>2<br>3<br>4<br>5<br>5이상<br>평균        | 1     | 7 (4.0)    |   | 4 (3.7)    |   | 3 (4.5)   |   | 25.68          | .2188 |
|   | 2     | 78 (44.3)  |   | 44 (40.4)  |   | 34 (50.7) |   |                |       |
|   | 3     | 54 (30.7)  |   | 32 (29.4)  |   | 22 (32.8) |   |                |       |
|   | 4     | 27 (15.3)  |   | 23 (21.0)  |   | 4 (6.0)   |   |                |       |
|   | 5     | 7 (4.0)    |   | 4 (3.7)    |   | 3 (4.5)   |   |                |       |
|   | 5이상   | 3 (1.7)    |   | 2 (1.8)    |   | 1 (1.5)   |   |                |       |
|   | 평균    |            |   | 3.0명       |   | 2.1명      |   |                |       |

2. 가설검증

1) 제1가설검증

“문제학생 부모의 부부관계는 정상학생부모의 부부관계에 비해 상호만족정도가 낮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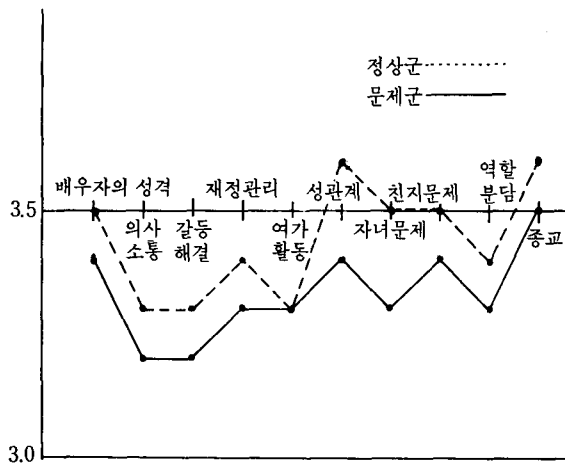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부관계 반응에 대한 두

군간의 점수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3> <그림1>과 같다.

전반적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수준( $t=3.07, p=.005$ )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군은 반응점수(평균=3.32)가 정상군의 반응점수(평균=3.62)보다 낮았다. 또한 아버지의 반응( $t=3.04, p=.006$ ), 어머니의 반응( $t=3.10, p=.005$ ) 각각의 비교에서도 두군간에 유의

<표2-2>

| 특성       | 구분      | 계   |        | 문제군 |        | 정상군 |        | x <sup>2</sup> -test | P     |
|----------|---------|-----|--------|-----|--------|-----|--------|----------------------|-------|
|          |         | F   | %      | F   | %      | F   | %      |                      |       |
| 연령(세) 평균 | 40미만    | 3   | (1.7)  | 1   | (1.7)  | 2   | (3.0)  | 3.95                 | .6839 |
|          | 40-49   | 112 | (64.2) | 70  | (64.3) | 43  | (64.2) |                      |       |
|          | 50-59   | 56  | (31.8) | 36  | (33.0) | 20  | (29.8) |                      |       |
|          | 60-69   | 4   | (2.3)  | 2   | (1.8)  | 2   | (3.0)  |                      |       |
| 종교       | 유       | 130 | (73.9) | 82  | (75.2) | 48  | (71.6) | .35                  | .9496 |
|          | 무       | 46  | (26.1) | 27  | (24.8) | 19  | (28.4) |                      |       |
| 학력       | 전문대이상   | 27  | (15.3) | 14  | (12.8) | 13  | (19.4) | 11.41                | .2485 |
|          | 고등학교졸업  | 76  | (43.2) | 49  | (45.0) | 27  | (40.3) |                      |       |
|          | 중학교졸업   | 42  | (23.9) | 24  | (22.0) | 18  | (26.9) |                      |       |
|          | 국졸및국문해독 | 31  | (17.6) | 22  | (20.2) | 9   | (13.4) |                      |       |
| 직업       | 근로자     | 12  | (6.8)  | 9   | (8.3)  | 3   | (4.5)  | 22.12                | .2269 |
|          | 숙련공     | 6   | (3.4)  | 3   | (2.8)  | 3   | (4.5)  |                      |       |
|          | 판매직     | 29  | (16.5) | 18  | (16.4) | 11  | (16.5) |                      |       |
|          | 사무직     | 5   | (2.8)  | 3   | (2.8)  | 2   | (3.1)  |                      |       |
|          | 관리직     | 6   | (3.4)  | 3   | (2.8)  | 3   | (4.5)  |                      |       |
|          | 전문직     | 3   | (1.7)  | 3   | (2.8)  | -   |        |                      |       |
|          | 가정주부    | 115 | (65.3) | 70  | (64.1) | 45  | (67.9) |                      |       |
| 이혼       | 있다      | 172 | (97.7) | 107 | (98.2) | 65  | (97.9) | 3.05                 | .8030 |
|          | 없다      | 4   | (2.3)  | 2   | (1.8)  | 2   | (3.0)  |                      |       |
| 가족형태     | 핵가족     | 137 | (77.8) | 80  | (73.4) | 57  | (85.1) | 10.45                | .0151 |
|          | 대가족     | 39  | (22.2) | 29  | (26.6) | 10  | (14.9) |                      |       |



<그림 1> 문제군과 정상군 부모의 부부관계 반응비교

한 차이를 보였는데 문제군의 아버지 (평균=3.31)와 어머니의 (평균=3.33)의 반응점수가 정상군 아버지 (평균=3.46)와 어머니 (평균=3.48)의 반응점수보다 낮았다.

10개의 하위요인별 두군간의 비교에서 아버지의 경우 성관계(t=3.94, p=.000), 자녀문제 (t=3.01, p=.004), 친지관계 (t=2.55, p=.018), 역할분담(t=2.74, p=.010) 등 4개의 요인에서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정상군의 반응점수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성관계(t=3.58, p=.001), 자녀문제 (t=4.42, p=.000), 종교(t=2.02, p=.044) 등 3개의 요인에서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낮았다.

<표 3> 정상군과 문제군 부모의 부부관계 반응 점수차이 검증

| 부부관계 하위요인  | 구분  | 아버지 반응 |      |      |      | 어머니 반응 |      |      |      | 계    |      |      |      |
|------------|-----|--------|------|------|------|--------|------|------|------|------|------|------|------|
|            |     | Mean   | S.E  | t    | P    | Mean   | S.E  | t    | P    | Mean | S.E  | t    | P    |
| 배우자성격      | 정상군 | 3.69   | .079 |      |      | 3.34   | .091 |      |      | 3.52 | .072 |      |      |
|            | 문제군 |        |      | 1.22 | .243 |        |      | 1.49 | .151 |      |      | 1.70 | .112 |
|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 정상군 | 3.38   | .066 |      |      | 3.21   | .089 |      |      | 3.29 | .070 |      |      |
|            | 문제군 |        |      | .95  | .336 |        |      | .95  | .374 |      |      | 1.09 | .315 |
| 갈등         | 정상군 | 3.35   | .058 |      |      | 3.26   | .070 |      |      | 3.31 | .057 |      |      |
|            | 문제군 |        |      | .08  | .939 |        |      | .07  | .949 |      |      | .00  | 1.00 |
| 해결         | 정상군 | 3.34   | .04  |      |      | 3.26   | .050 |      |      | 3.31 | .039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재정         | 정상군 | 3.44   | .059 |      |      | 3.41   | .063 |      |      | 3.42 | .055 |      |      |
|            | 문제군 |        |      | 1.50 | .144 |        |      | 1.08 | .285 |      |      | 1.15 | .146 |
| 관리         | 정상군 | 3.34   | .042 |      |      | 3.32   | .048 |      |      | 3.33 | .037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여기         | 정상군 | 3.28   | .051 |      |      | 3.38   | .055 |      |      | 3.33 | .046 |      |      |
|            | 문제군 |        |      | .35  | .733 |        |      | 1.94 | .065 |      |      | 1.41 | .186 |
| 활동성관계      | 정상군 | 3.26   | .035 |      |      | 3.26   | .035 |      |      | 3.26 | .028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자녀문제       | 정상군 | 3.66   | .061 |      |      | 3.59   | .064 |      |      | 3.26 | .056 |      |      |
|            | 문제군 |        |      | 3.94 | .000 |        |      | 3.58 | .000 |      |      | 4.51 | .000 |
| 친지와        | 정상군 | 3.49   | .061 |      |      | 3.55   | .053 |      |      | 3.52 | .052 |      |      |
|            | 문제군 |        |      | 3.01 | .004 |        |      | 4.42 | .000 |      |      | 4.30 | .000 |
| 의관계        | 정상군 | 3.27   | .042 |      |      | 3.25   | .041 |      |      | 3.26 | .034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역할         | 정상군 | 3.55   | .069 |      |      | 3.53   | .062 |      |      | 3.54 | .060 |      |      |
|            | 문제군 |        |      | 2.99 | .018 |        |      | 1.74 | .086 |      |      | 2.24 | .023 |
| 분담         | 정상군 | 3.36   | .043 |      |      | 3.39   | .048 |      |      | 3.37 | .039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중요         | 정상군 | 3.36   | .065 |      |      | 3.50   | .058 |      |      | 3.43 | .052 |      |      |
|            | 문제군 |        |      | 2.75 | .010 |        |      | 1.71 | .089 |      |      | 2.18 | .008 |
| 총          | 정상군 | 3.15   | .043 |      |      | 3.38   | .046 |      |      | 3.27 | .033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계          | 정상군 | 3.57   | .071 |      |      | 3.67   | .067 |      |      | 3.62 | .063 |      |      |
|            | 문제군 |        |      | 1.97 | .053 |        |      | 2.02 | .044 |      |      | 2.27 | .027 |
|            | 정상군 | 3.39   | .054 |      |      | 3.49   | .055 |      |      | 3.45 | .042 |      |      |
|            | 문제군 |        |      |      |      |        |      |      |      |      |      |      |      |
|            | 정상군 | 3.46   | .044 |      |      | 3.48   | .046 |      |      | 3.47 | .045 |      |      |
|            | 문제군 |        |      | 3.04 | .006 |        |      | 3.10 | .005 |      |      | 3.07 | .005 |
|            | 정상군 | 3.31   | .025 |      |      | 3.33   | .026 |      |      | 3.32 | .026 |      |      |
|            | 문제군 |        |      |      |      |        |      |      |      |      |      |      |      |

<그림1>에서와 같이 부부관계에 대한 두군간의 반응 특성을 비교해 본결과 부부관계요인중 반응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문제군의 경우에는 종교(평균=3.45), 배우자성격(평균=3.38)순이었고 정상군의 경우에는 종교(평균=3.62), 성관계(평균=3.62)순이었다. 가장낮은 반응을 보인 요인은 문제군의 경우 배우자과의 의사소통(평균=3.21), 자녀문제(평균=3.26), 여가활동(평균=3.26)이었고 정상군의 경우는 배우자

의 의사소통(평균=3.29), 갈등해결(평균=3.31)순이었다.

상술한 바와같이 두 군간의 부부관계 반응비교를 통해 문제군 부모는 정상군 부모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응 점수가 낮음과 특히 10개의 하위요인중 5개의 요인에서 현저히 낮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제1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부부관계 하위요인 비교에서는 5개 요인만 확실히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제2 가설검증

“문제학생가족의 부모-자녀관계는 정상학생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비해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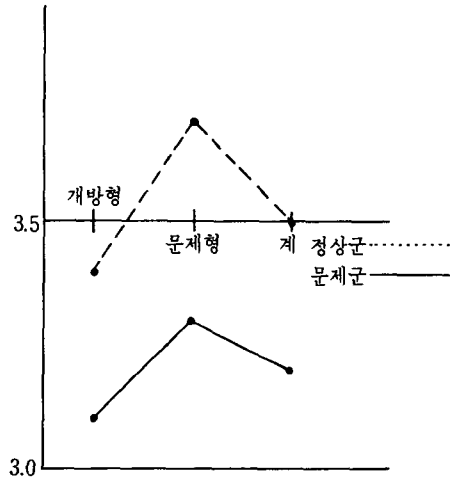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두군간의 반응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표4><그림2><그림3>과 같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반응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군(평균 = 3.20)과 정상군(평균=3.25)간에 유의한 차이(t=4.06, P=.000)가 있었으며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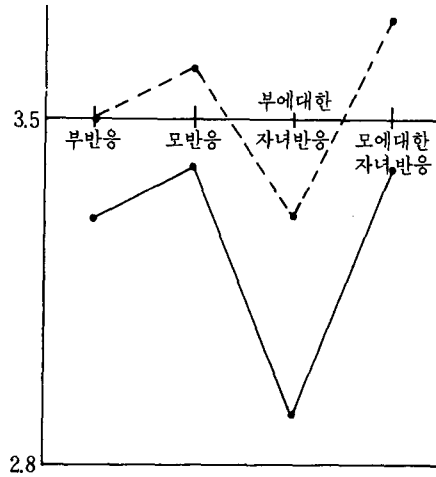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비교에서 개방형의 경우 문제군의 반응점수(평균=3.11)는 정상군의 반응점수(평균=3.41)에 비해 유의한 수준(t=2.99, P=.010)에서 낮았고, 문제형의 경우에서도 문제군의 반응점수(평균=3.28)는 정상군의 반응점수(평균=3.65)에 비해 낮았다. (t=4.18, P=.000)

두 군간의 가족3인 각각의 반응비교에서 아버지의 반응(t=3.66, P=.000), 어머니의 반응(t=4.13, P=.000) 그리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반응



<그림2> 문제군과 정상군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반응 비교



<그림3> 문제군과 정상군 가족3인의 의사소통 반응 비교

<표 4> 문제군과 정상군의 부모-자녀 의사소통반응 점수차이검증

| 의사소통 구분 | 계            | 아버지 반응         |                | 어머니 반응         |                | 자녀반응           |             |             |      |
|---------|--------------|----------------|----------------|----------------|----------------|----------------|-------------|-------------|------|
|         |              | Mean S.E t (P) | Mean S.E t (P) | Mean S.E t (P) | Mean S.E t (P) | Mean S.E t (P) |             |             |      |
| 개방형 문제군 | 3.11         | 0.55           | 3.19           | .053           | 3.34           | .047           | 2.74        | .062        |      |
|         | 2.99 (0.005) |                | 2.66 (.007)    |                | 2.27 (.29)     |                | 3.18 (.003) |             |      |
| 정상군     | 3.41         | 0.74           | 3.41           | .060           | 3.52           | .067           | 3.10        | .101        |      |
| 문제형 문제군 | 3.28         | 0.53           | 3.38           | .056           | 3.37           | .045           | 3.06        | .057        |      |
|         | 4.18 (0.000) |                | 3.43 (.000)    |                | 4.96 (.000)    |                | 3.45 (.081) |             |      |
| 정상군     | 3.65         | 0.67           | 3.68           | .058           | 3.75           | .064           | 3.45        | .081        |      |
| 계 문제군   | 3.20         | 0.46           | 3.29           | .046           | 3.36           | .039           | 2.90        | .051        |      |
|         | 4.06 (.000)  |                | 3.66 (.000)    |                | 4.13 (.000)    |                | 3.94 (.000) |             |      |
| 정상군     | 3.52         | 0.68           | 3.54           | .049           | 3.64           | .059           | 3.27        | .087        |      |
|         |              |                |                |                |                |                | 3.26        | .049        |      |
|         |              |                |                |                |                |                |             | 4.57 (.000) |      |
|         |              |                |                |                |                |                |             | 3.66        | .078 |

\*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가 많음을 의미

( $t=3.94, P=.000$ ),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 반응 ( $t=4.57, P=.000$ )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정상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요인별 가족3인 각각의 반응비교에서도 개방형, 문제형 모두에서도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정상군의 아버지반응, 어머니반응,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녀반응점수에 비해 유의한 수준 ( $p<.05$ )에서 낮았다.

위에서와 같이 두 군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비교에서 전체점수비교, 하위요인별 (개방형, 문제형)비교, 그리고 가족 3인 각각의 비교 모두에서 문제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문제군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3) 제 3 가설 검증

“문제 학생가족의 가족기능(결속력, 적응력)은 정상 학생가족에 비해 가족기능이 낮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기능 반응에 대한 두 군간의 반응점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5> <그림4>와 같다.

가족기능 반응에 대한 두군간의 차이검증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군(평균=3.30)과 정상군(평균=3.55) 간에 유의한 차이 ( $t=2.20, P=.022$ )가 있었으며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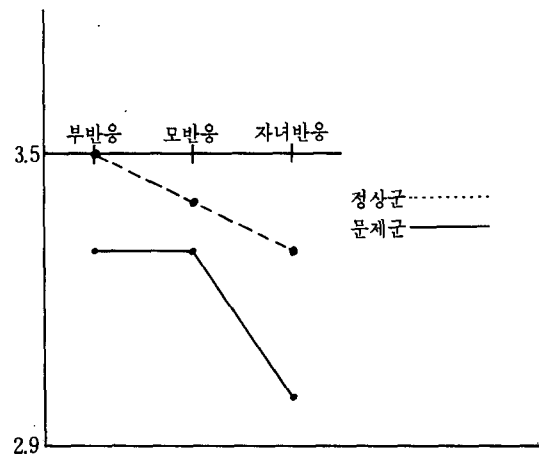
하위요인별 비교에서 결속력의 경우 문제의 반응점수 (평균=3.30)는 정상군의 반응점수 (평균=3.55)에 비

해 유의한 수준 ( $t=2.20, P=.022$ )에서 낮았고, 적응력의 경우에서도 문제군의 반응점수 (평균=3.10)는 정상군의 반응점수(평균=3.26)에 비해 낮았다.

( $t=2.21, P=.022$ )

두 군간의 가족3인 각각의 반응비교에서 어머니의 반응을 제외하고 아버지의 반응 ( $t=2.26, P=.021$ )과 자녀반응 ( $t=3.97, P=.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정상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속력, 적응력 반응비교에서도 아버지반응, 자녀반응 모두에서 문제군의 반응점수가 유의한 수준 ( $P<.005$ )에서 낮았다.



<그림4> 문제군과 정상군의 가족기능 반응비교

<표 5> 문제군 정상군의 가족기능반응 점수차이검증

| 가족기능 하위요인 | 구분  | 계    |          | 아버지 반응 |           | 어머니 반응 |           | 자녀 반응 |           |
|-----------|-----|------|----------|--------|-----------|--------|-----------|-------|-----------|
|           |     | Mean | S.E t(P) | Mean   | S.E t (P) | Mean   | S.E t (P) | Mean  | S.E t (P) |
| 결속력       | 문제군 | 3.30 | .055     | 3.41   | .055      | 3.38   | .057      | 3.11  | .052      |
|           | 정상군 | 3.55 | .072     | 3.26   | .008      | 3.50   | .071      | 3.53  | .076      |
| 적응력       | 문제군 | 3.10 | .043     | 3.24   | .043      | 3.17   | .042      | 2.90  | .044      |
|           | 정상군 | 3.26 | .072     | 3.39   | .044      | 3.25   | .052      | 3.41  | .054      |
| 계         | 문제군 | 3.20 | .044     | 3.32   | .045      | 3.37   | .053      | 3.01  | .042      |
|           | 정상군 | 3.40 | .054     | 3.50   | .050      | 3.28   | .045      | 3.34  | .059      |

### 3. 추가분석

#### 1) 중다회귀분석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의 행동을 종속 변수로 하여 이들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부부관계와 자녀행동간의 회귀방정식은  $Y'$  (자녀행

동에측차) =  $-.22055 \times$  부부관계 +  $19.92427$ 로 산출되었고,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녀행동간의 회귀방정식은  $Y' = -.22422 \times$  부모-자녀관계 +  $23.50981$ 로, 그리고 가족기능과 자녀행동간의 회귀 방정식은  $Y' = -.15399 \times$  가족기능 +  $17.60535$ 로 산출되었다.

자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결정계수  $R^2 = .14122$  였고, 부모-자녀관계의 결정계수  $R^2 = .08158$ , 가족기능의 결정계수  $R^2 = .02371$  이었고, 3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정계수  $R^2 = .25651$  이었다.

<표 6> 중다회귀분석

| 변 수     | 중다회귀계수 | R Square | $\beta$ | F        | P     | Constant |
|---------|--------|----------|---------|----------|-------|----------|
| 부부관계    | .37580 | .14122   | -.22055 | 10.56637 | .0000 | 19.92427 |
| 부모-자녀관계 | .29563 | .08158   | -.22422 | 12.25146 | .0000 | 23.50981 |
| 가족기능    | .15399 | .02371   | -.15399 | 7.45709  | .0067 | 17.60535 |
| 계       |        | .25651   |         |          |       |          |

#### 2) 가족진단을 위한 도구의 판별분석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녀의 행위(정상, 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후 이들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가족을 정상가족과 문제가족으로 분류하기 위해 이들의 판별능력을 이항판별분석(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방법으로 처리한 결과는 <표7>과 같다.

부부관계 도구에 의해 연구대상 가족이 정상가족군과 문제가족군으로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판별점수는

75.57% 이었다. 즉 자녀의 행위(정상, 문제)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실제의 정상군(67가족)중 부부관계 측정도구에 의해 정상가족군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수는 39가족(58.2)이었고 그리고 문제군(107가족)이면서 문제가족군으로 분류된 수는 28가족(41.8)이었다.

부모-자녀의사소통 도구에 의해 두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별 점수는 67.05%이었고 가족기능 변인에 의해 두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판별 점수는 67.61% 이었다.

<표 7>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 도구의 판별능력분석

| 하위요인          | 실제집단 | 수   | 정상군으로      |            | 문제군으로      |            | 판별능력   |
|---------------|------|-----|------------|------------|------------|------------|--------|
|               |      |     | 분류된수 및 백분율 | 분류된수 및 백분율 | 분류된수 및 백분율 | 분류된수 및 백분율 |        |
| 부부관계          | 문제군  | 109 | 15         | 13.2%      | 94         | 86.2%      | 75.57% |
|               | 정상군  | 67  | 39         | 58.2%      | 28         | 41.8%      |        |
| 부모-자녀<br>의사소통 | 문제군  | 109 | 13         | 11.9%      | 96         | 88.1%      | 67.05% |
|               | 정상군  | 67  | 22         | 32.8%      | 45         | 67.2%      |        |
| 가족기능          | 문제군  | 107 | 11         | 10.1%      | 98         | 89.9%      | 67.61% |
|               | 정상군  | 67  | 21         | 31.3%      | 46         | 68.7%      |        |

4. 논의

1) 부부관계비교

제1가설 검증결과 문제학생부모의 경우 정상학생부모에 비해 현저히 부부관계가 부정적이고 상호만족도가 낮음이 밝혀졌으며 부부관계 요인중 특히 애정 및 성관계, 자녀문제 및 시가. 처가를 비롯한 친지들과의 관계,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분담, 종교문제 등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학생의 부모는 배우자의 애정 및 성관계와 자녀의 문제에 관해 부부기간에 갈등이 심한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제1가설이 전반적으로 지지는 되었으나 부부관계 하위요인중에서는 5개요인에서 만 확실히 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군간의 반응특성비교를 통해 문제학생부모의 경우 타부부관계하위요인에 비해 종교와 배우자성격에 대한 부부간의 만족정도는 높으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나 자녀의 문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상학생부모의 경우는 타하위요인에 비해 종교와 애정및 성관계에대한 부부간의 만족정도는 높으나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의 문제에대한 만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군부모의 경우 정상군부모에 비해 비교적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김윤희, 1992), 와 비행청소년 가족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많은 보고들(Jacob, 1975 : Hetherington & Motin, 1979 : 김소야자, 1982. 석달숙, 1988) 과도 일치한다.

부부는 양육체제를 겸하므로 부부의 기능과 부모의 기능을 분리시킬 수 없으며 (Satir, 1971:Foley, 1974: 김종욱, 1988)부모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권위를 적절히 사용하여 항상 융통성 있는 통제와 지지로 자녀의 독립심과 자율성을 형성시켜줄 책임이 있으므로 (Minuchin, 1974), 만일 부모가 가족내에서 권위의 부재로 집행권을 상실할 경우 자녀를 장기적인 기능장애자로 만들수 있다. (Heley, 1971) 또한 부모들의 부적절한 감독과 지도(Jensen, 1972), 부모로서의 효율적인 역할수행기술의 부족 및 보유한 기술의 비능률적 사용으로 비행이 발생되었다는 연구결과(Rosenberg, 1974)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대 가족구조의 특성인 핵가족은 부부의 애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므로 가정의 정서적 안정도 부부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정서적 불안

정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들은 평등주의와 독립성을 근거로 가족내부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족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충족하려한다 (송성자, 1991)는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부모-자녀관계비교

제2가설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문제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정상학생에 비해 폐쇄적이고 문제가 많음이 밝혀졌다. 즉 문제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솔직,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중구속적이며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간의 이해와 만족정도가 낮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및 경계심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국 문제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정상군에 비해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3인 각각의 반응특성 비교결과를 통해 두 군 공히 부모들은 자녀에 비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개방적, 긍정적인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자녀지간보다 아버지-자녀지간이 더욱 부정적이고 두 군간의 비교에서 문제학생쪽이 훨씬 심각하였다.

다시말해 두군 공히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매우 부정적이고 세대간의 차이가 심하여 어머니-자녀 지간보다 아버지-자녀지간에 더욱 심각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 가족 (Alexander 와 그의 동료, 1973, 1976, 1977:Jacob, 1975:김윤희, 1989) 과 정신질환청소년가족(Masselam, 1986:김윤희, 1992)의 부모-자녀의사소통은 모범 또는 정상 청소년 가족에 비해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으며 모순된 의사소통을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생활주기 중 청소년기 가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결여 및 심한 세대간의 차이(Minuchin, 1974: Satir, 1967:Foley, 1974:Olson등, 1983)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사려된다.

3) 가족기능비교

제3가설 검증결과 전반적으로 문제학생가족은 정상학생가족에 비해 가족의 기능 즉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떨어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문제학생가족의 경우 정상학생의 가족에 비해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어렵고 상황적, 발달적스트레스에도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제3가설은 지지가

되었다.

두 군의 가족3인군 각각의 반응 비교결과 두 군 공히 부모들에 비해 자녀들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과 또한 아버지와 자녀간의 지각의 차이가 매우 심함을 확인하였으되 이들 모두는 문제 학생에게서 더욱 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고승자, 1985) 및 정신건강상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안양희, 1988), 가족기능과 환경에 대한 가족원간의 지각불일치 및 부모-자녀간의 심한 갈등이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정신질환가족에게서 정상가족에게보다도 더욱 심하다는 연구결과(Moos, 1974: 김소야자, 1982) 등과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이 저하된다(Minuchin, 1974: Satir, 1967: Foley, 1974: Olson 등, 1983)는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4) 추가분석

##### ① 증다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미 앞에서 지지된 가설검증결과를 재확인해 보았다. 그리하여 3독립변수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이 자녀의 행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부관계가 좋고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소경향을 나타내리라는 것이 예측되었다.

그리고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설명변량은 약 14.1% 정도, 부모-자녀의 설명변량은 약 8.2%, 가족기능의 설명변량은 약 2.3%이고 3변인 모두로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설명변량은 약 25.7% 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 하위체계는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재 확인되었다.

##### ② 도구의 판별분석

각도구를 이용하여 가족체계를 정상가족군과 문제가족군으로 진단 및 분류할 수 있는 설명변량비율은 부부관계측정도구의 경우 약 76%, 부모-자녀의사소통측정도구의 67%, 가족기능측정도구의 경우 약 68%임이 밝혀졌다. 세 도구 중 판별력이 가장 높은 것은 부부관계측정도구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3가지의 측정도구는 가족체계를 진단 및 분류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려된다.

지난 10여년동안 가족체계를 사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이들 측정방법과 유효성에 아직 의문점이 많고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부 및 가족체계의 복잡성을 적절히 종합할 수 있는 측정도구들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Niskerson, Coyne, 1987)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 접근의 부부 및 가족체계를 진단하고 사정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도구들은 진단적 도구를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 V. 결론

가설검증결과 문제학생가족은 정상학생가족에 비해 부부간의 상호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으며 가족기능은 역기능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관련분석을 통해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이 자녀의 행위에 영향이 미침이 밝혀졌다. 즉 부부관계가 좋고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개방적,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소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녀의 문제행위는 가족체내 하위체계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기인된 가족관계의 부산물이라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행위 학생은 역기능적 가족상호작용에 의해 희생된 가족의 속죄양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서 급증하고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위내지는 비행행위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용방법으로서 현재의 개인중심치료를 탈피하여 체계전체를 개입시키는 가족치료로 대처시켜볼것과 또한 근본적인 자녀 문제 발생과 재발 및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에서의 부모교육 또는 부부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도구에 대한 판별분석결과 가족원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도구에 의해 어느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러한 도구들은 임상적 진단을 내리고 치료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문제의 원인이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가족기능중 어디에 있고 문제의 내용은 어느 하위요인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 전략과 기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도구



로서의 유효성이 높다고 사려된다.  
그리고 점수처리가 용이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간호현장(임상, 보건소, 보건진료소등)또는 학교, 지역사회상담기관등에서 개인상담, 부부 또는 부모 상담, 가족상담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고승자(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심(1975). 결혼 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천 역(1988). 가족치료, 원광대학교 출판국, In Jansen Curtis & Harris Oliver(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llionis : F.E.Peacock Publishers, Inc.
- 김소야자(1982). 가족환경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와 정신질환자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박사학위논문, 39-41.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비행과의 관계연구 (1992). 정신질환청소년과 정상청소년의 가족정신역동비교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경희행정 논총, 제7권2호.
- 김종욱(1988).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11집, 서울특별시 시립아동 상담소, 15.
- 김재은(1967). “한국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논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57-176.
- 서말숙(1988).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 양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6.
- 양성자(1991).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 홍익제.
-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 안양희(1988). 고등학교 남학생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서컴플렉스모형을 이용하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박사학위 논문.
- 안향림(1974). 가족치료를 통한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온대중(1988). 한국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범죄의 현상과 범죄성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혁표, 제석봉·김정택공역(1993). 가족치료,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명홍(1986). “우리나라 가족치료 현황과 임상사례를 통해본 가족치료모델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논총 제49집, 사회과학편.
- 이형득, 김선남, 소기민 공역(1988). 가족치료입문, 서울 : 형설출판사, 160
- Abt, Lawrence Edwin & Stuart, Irving, R.(1982). The Newer Therapies : A Sourcebook, New York : Von Nostrand Reinhold Comp. 184-185.
- Ackerman N.(1970). “Family Intervening : The Study Process”, in Ackerman N., Lieb J. & Perace J.(eds) : Family Therap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3-19.
- Alexander, J.F.(1973). “Defensive &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 deviant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223-231.
- Bell, R.(1982). “Parent-Adolescent interaction in runaway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St. Paul.
- Bertalanffy., L.V.(1968). “General system theory : and Psychiatry”, in Arietie(ed., ) The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3, New York : Basic Books, 702-720.
- Bowen, M.(1971).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Changing Families, Jay Haley, New York : Grune & stratton, 165-175, 173-176.
- \_\_\_\_\_ (1978).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Guerin(Ed.), Family therapy : Theory & Practice, New York : Gardner, 42-90.
- Compbell, Angus, Philip Converse, and Willard Rodgers(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 Duncan, P.(1971). "Parental attitudes and interactions in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42, 1751-1766.
- Foley, D.Vincent(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rapy*, New York : Grune & Stratton, 108.
- Guerin, Philip J.(1976).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Inc.
- Gurman, Alan S. & Kniskern, David, P(198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 /Mazel, Publishers, 270-271.
- Hall, J.(1982). "The Care for health hazard appraisals : Which health-screening techniques are cost-effective?" *Journ. Applied Behavior Analysis*, 5, 53-64.
- Hansen, James C. & L. L'Abate(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 McMillan Publishing Co., 162-164.
- Hetheington, E.M., Stovwie, R.J., & Ridberg, E.H. (1971).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60-176.
- Hetherington, E.M., & Martin, B.(1979). "Family interaction" In H.C., Quay & J.S. Framo, (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 Harper & Row, 343-363. Werry(eds.),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2nd ed.), New York : McGraw Hill.
- Hoffman, L.(1981).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asic Books, Inc., Publishers.
- Jackson, D. & Weakland J.(1971). "Conjoint Family therapy : Some Consideration on Theory, Technique & Results" in J.Haley, *Changing Families*, New York : Grune & Stratton, 16.
- Jacob, T.(1975).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 normal families : A Methodological &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33-65.
- Jansen, Curries & Harris, Oliver, (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llinois : F.E.Peacock Publishers Inc. 15.
- Jessop, D.J.(1981). "Family relationships as viewed by parents & adolescents : A Specification", *Journal Marria the Family* 43, 95-107.
- Laing, R.(1965). "Mystification, confusion, & Conflict", in Boszormenyi-Nagy, & Framo, J. (eds.). *Intensive Family Therapy : Theoretical & Prac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 Row. 343-363.
- Lidz T.(1958). "Schizophrenia & the Family", *Psychiatry* 21 : 21-27.
- Masselam, Venus Shirley(1989).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ing and School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Univ. of Maryland.
- Miller, James G.(1980). "The Family as a System", in Hofling, C.E., & Lewis, J.S., *Family Evaluation & Treatment*(ed.), New York : Brunner /Mazal.
- Miller, Jean R. & Janosik, Ellen H.(1980). *Family-Focused Car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6.
- Minuchin, S., Montalvo, B.G., Guerney, B., Rosman, B.L., & Schumer, F.(1967). *Families of the Slums : An exploration of their structure & treatment*, New York : Basic Books.
- \_\_\_\_\_(1974). *Families & Family therapy*,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51-57.
- Moos, R.H.(1974). "Family environment scale", Palo Alto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Nye, F.I., & Berardo, E.M.(1973). *The Family : Its Structure & Interaction*, New York : Macmillan.
- Olson, David H, Fournier, D.G., & Druckman, J.M., (1982). *ENRICH*, Mineapolis : PREPARE-ENRICH.
- Olson, David H, et al(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 Proc.*, 22, 69-83.
- Olson, David H, & Barnes, H.L.(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Fam. Process*, 56,

438-447.

- \_\_\_\_\_, et al., (1986).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 FACES III, " *Fam. Proc.*, 25, 337-350.
- Satir, Virginia(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 Behavior Books.
- Steinbock, L. (1977). "nest-leaving ; family systems of runaway adolescents, "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Windell, J.C., & Windell, E.A.(1977). "Parent Group Training Programs in Juvenile Courts : A National Survey". *Family Coordinator* 26 : 450-463.
- Witaker, C.a., & Keith, D.V.(1981). "Symbolic-Experimental Family Therapy." In S.Guman & D.P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157-225.
- Wvne, L.C., Ryckoff, I.M., Day, J. & Hirsch, S.I. (1958).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205-222.

- Abstract -

## The Comparative Study of Family Dynamics between Families of Problem Students and of Normal Students.

Examination of the parents' relationship as a coupl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Kim, Yoon Hee\* · Moon, Heui Ja\**

The study was done to better understand problem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as described in family system theory, which explains the individual's problem within the family interactions.

### The purpose of the study

1.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parents' relationship as a couple between the two groups.
2.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3.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family function (cohesion adapta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 The method of the study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a total of 176 families (528 persons), 109 high school students (2nd grade) with problem behavior and their parents (problem family group), and 69 high school students (same grade) with normal behavior and their parents (normal family group) residing in the Seoul area.

Data were gathered from structured,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a Couple Relation measurement(95 item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easurement (20 items),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Scale (20 items) by David H. Olson et al., and a behavior evaluation tool.

### The results of the study

1. The results as related to the hypothesis were as follows :

Hypothesis 1: "satisfaction within The couple's relationship of the parents of problem family group will be lower than the normal family group was supported significantly( $t=3.07, p=.005$ ).

Hypothesis 2: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f the problem family group will be more negative and problematic than the normal family group" was supported significantly( $t=4.06, p=.000$ ).

Hypothesis 3: "The family function (cohesion

\*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

adaptability) of the problem family group will be lower than the normal family group" was supported significantly ( $t=2.20$ ,  $p=.022$ )

2. The results of related analysis were as follows

1) Analysis of a causal relation between the couple's relationship,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and adolescent behavior showed that the Above 3 variables influenced adolescent behavior. In cases where couple's relationship, the parent-adolescent's relationship, the family function are the better, their adolescent's behavior is better.

2)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reserch tool showed :

The discriminant ability of couple's relationship tool was 75.57%,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ool, 67.05, th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tool, 67. 61%.

In summar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family subsystems are interactive and their relation influences the behaviors, of adolescents in the family.

Therefore, family therapy would be a more effective method than individual therapy, to resolve negative problem for adolscents, and the research tool used in this study are very useful for family system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